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4 주일

제7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성 롱기노스 백인대장 순교자
(제1조 • 조과 부활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1조 부활 찬양송	81
성 교부들 찬양송	8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85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9	
복음경 : 루가 8,5~15	12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송

교부들은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송은 신자들의 마음에 유익한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세 분의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는 "시편은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평화가 그 영혼을 지배합니다. 슬픔을 없애고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성 대 아타나시오스는 "찬양송을 통해 마음의 혼란, 무질서, 잔인함이 정상화되고 슬픔을 일으킨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찬양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찬양송이 공기마저 거룩하게 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공의회의 카논(규범)에서 규정한 것처럼, 성가는 콘서트의 음악처럼 신자들의 귀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혹시 우리는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성사도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고린토 후 6,4)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일 같이 겪은 사건들을 일곱 절에 걸쳐 나열하면서, '무슨 일이나'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과연 바울로 자신과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도 잘 견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고린토 후 6,4~10)

사도 바울로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과 그의 동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일과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로 사도는 왜 '무슨 일이나'라고 강조할까요?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 실수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삶에서의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고귀한 성체성혈 성사에 참여는 하지만, 성당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예배 후에 이어지는 예배(liturgy after the Liturgy)'가 되도록 하기는커녕, 교회에 무관심한 자들이나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삶과 다름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남과 자주 다투고, 물질적 욕심이 많고, 쾌락을 추구하고, 남에 대한 복수심이 있고, 사랑이 없는 모습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전체를 비방하고 조롱할 여지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 모두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거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뿔들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태오 18,6)

불신(不信)



거짓이, 그리고 오직 거짓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느낌, 거짓된 욕망 등... 우리를 비존재(非存在), 환영(幻影), 하나님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이끄는 이 모든 거짓들의 총합을 바라보십시오!

-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

주님은 교만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영혼은, 비록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성령의 은총이 들어설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며,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에게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

교만은 우리 영혼이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신자에게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진 채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에게 곧바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증인이 될 것이며, 그는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어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

모든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실되고 열렬한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곧, 신앙은 좋은 도덕이 있는 곳에서만 보존됩니다.

- 성 니콘 러시아 옴티나의 수도자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0월 21일(금), 축일을 맞이하시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느님께서 신부님의 사목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0월 18일(화)
루가 복음 사도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성찬예배 후, 열리는 음식 축제에는 한국,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미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주일(9일), 슬라브인 7명이 로만 카브착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성인) 텐 베로니카, 한 예가떼리나

(유아) 이 소피아, 김 막심, 스테판, 아드리아나, 이 마리아

■ 양구 성당 보수공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서울 성당 장년회가 지난 7~9일에 양구 성당과 사택 건물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우천으로 마무리가 덜된 잔여 작업은 다음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 영화 관람 안내

천주교 가톨릭 영화제에서 국내 처음으로 정교회 영화가 상영됩니다. 제목은 '하느님의 사람(Man of God)'으로 에기나의 넥타리오스 성인의 생애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미국, 그리스, 러시아 등의 유명 배우가 출연하며, 한국어 자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만큼 관람을 추천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서울 성당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4시

장소 : 종로 또는 중구 내 영화관 (차후 확정)

표지 사진 설명



실로암 연못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요한 9,6~7)

구 예루살렘 동쪽의 키드론 계곡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서서 계단을 내려가면 기혼 샘에서 발원한 물이 지하수로를 통해 흘러 들어 온 실로암 연못(사진)이 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바로 그 연못이다. 실로암 연못은 헤로데 시대에는 커다란 회랑이 있었고 비잔틴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졌으나 614년에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이후로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실천하였기에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 더불어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도 열어주셨다. 우리도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